조사연구(2022. 5) 23권 2호: 71－97
DOI http://dx.doi.org/10.20997/SR.23.2.3

연구논문

문화예술행사 참여의 변화, 2012-2019:
교육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윤나래* · 이윤석**

본 연구는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 변화와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 문화예술행사의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문화예술행사 참여에서 연도별 변화와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문화예술 유형에 따라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시간변화가 문화예술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교육과 연령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교육수준과 연령 차이에 따른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교육수준, 연령차이,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con826@uos.ac.kr), 제1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yslee@uos.ac.kr), 교신저자.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관련 활동과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사회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박은희·최혜경 2014; 장훈 외 2012). 더불어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문화를 누려야 한다는 문화권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높아졌으며 문화예술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였다(김재근 2019; 오인수 2017). 문화예술참여 실태는 1990년대 이후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자료가 축적되면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어 왔다(강수택·박재홍 2013; 박은희·최혜경 2014; 이아영·김범수 2021; 정영찬 외 2014).

문화예술참여는 개인에게는 사회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구승회 2020; 서인석 2016),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역할(서우석 2015; MacPherson & Flinn 2008)을 한다고 밝혀져 왔다.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어 왔고 문화예술참여가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Kalmijn & Kraaykamp 1996; Katz-Gerro 2002; Katz-Gerro & Jæger 2013; Warde & Bennett 2008).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과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인 '문화누리카드(문화바우처)' 등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문화예술 관련 지역사회 프로그램, 문화시설 접근성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으며(정무성·김은아 2013; 정영교 2019; 진현정 외 2020; 최상미 외 2015), 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문화격차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적 문화예술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문화자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과학 영역에서 전통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부르디외(Bourdieu 1984) 이후 문화자본 개념이 강조되면서 경제자본을 포함하여 사회자본

과 문화적 취향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Chan & Goldthorpe 2007; Katz-Gerro 1999; Reeves & De Vries 2019; Rössel 2011; Warde & Bennett 2008). 한국의 문화자본 연구들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하며 경험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을 추적하거나(최샛별 2014; 최순화 2021c; 홍윤미 외 2015), 세대별 문화예술 활동이나 경험의 차별성을 분석한다(백처라·허식 2020; 성연주 2018; 정지은 2016; 최순화 2021a; 최순화 2021b).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활동이나 경험과 관련한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조사자료의 축적으로 최근에는 시계열적 분석을 다루기 시작하였다(류희진·허식 2018; 박은희·최혜경 2014). 이처럼 문화자본과 경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격차에 대한 이론화 작업들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는 문화예술 경험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의 변화와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문화자본의 영향 및 취향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문화예술 경험의 변화를 문화예술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문화자본의 대표적 지표로 교육 수준의 영향과 문화 향유 격차에서 드러난 세대별 차이를 연령의 효과로 검증한다. 기존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룬 시계열 연구는 2000년대를 분석한 경우(강수택·박재흥 2013; 박은희·최혜경 2014)로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교적 최근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였지만 시간 변화를 변수로 활용하지 않았다(류희진·허식 2018; 이아영·김범수 2021). 또한 문화예술행사 유형을 구분하지 않거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로 구분하여 문화예술행사 유형의 다양성을 다루지 못하였다. 일부 종단연구에서 문화활동 실태를 다루었지만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 특정 장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배인경 2018; 선우유영 외 2016; 조동민 외 2020; 지현진 2009). 따라서 한국 사회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행사 경험에 대한 최근의 연도별 변화를 다룬 국내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성인의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 실태와 연도별 변화, 그리고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연도별 변화에 따른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최근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소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여 문화예술행사 유형에 따른 기존의 문화자본 논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관람 특성

문화소비는 예술가나 제작자가 창작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최순화 2021c). 문화소비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구매 행위라는 소비적 차원을 넘어, 체험을 통해 소비자와 문화상품의 관계를 연결해준다는 측면에서 체험경제이론(Pine & Gilmore 1999)으로 확장하여 문화적 소양을 축적시키는 경험의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문화예술 경험은 관람료 지출을 위한 경제적 자원이나 일정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삶의 질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참여 혹은 활동 관련 수치를 질 높은 여가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예술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관련 자료의 생산이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경험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문화예술 경험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가 있다.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수준 등을 변수로 삼아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다(박은희·최혜경 2014; 이은우 2016; 최순화 2021c).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교육수준과 연령의 영향을 제외하고,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가족규모와 지역규모 차이이다. 가족규모는 적을수록, 혹은 미혼일수록 문화예술 관련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박혜련·허식 2017; 이은우 2016), 특히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문화예술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김두이·김상훈 2019). 다음으로 지역에 따른 문화격차는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이다. 관련 연구에서 지역별 문화격차를 완화시켜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으며(강수택·박재흥 2013)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문화정책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전국 단위 조사자료를 통한 연구에서는, 지역규모 차이와 문화예술 인프라의 수를 비교하는 데 그쳐 실제 도·농 간의 문화 격차를 정의하는 것에 한계를 보인다. 또한 군 지역(농어

촌 지역)에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증가했다는 결과(소병희 2008)와 농어촌 지역에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분적 영향만 나타나는 결과(홍윤미 외 2015; 서주환·이유진 2018; 최순화 2021c)가 보고되어 지역차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피는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별하여 이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부르디외(Bourdieu 1984)의 문화적 취향에 따른 계급 구별 논의가 구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문화자본 논의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소위 고급 예술 범주를 벗어나 대중예술까지 취향이 확장되고 있다는 문화이동과 옴니보어 이론으로 발전되었으며(Peterson 1992; Peterson & Kern 1996), 다양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Bourgeon-Renault et al. 2006; DiMaggio & Mukhtar 2004; López-Sintas & Katz-Gerro 2005; Warde & Gayo-Cal 2009). 이를 적용하여 한국적 문화예술 취향을 밝히고자 한 연구에서는 한국적 고급문화의 위계를 정립하고 장르적 특성을 밝혀 계급적 문화취향의 구별짓기를 보여주거나(박근영 2014; 최샛별 2014), 계층적 차이의 영향력을 논의한다(김선형 2008; 정영찬 외 2014). 이러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가진 문화자본의 영향력은 확인되지만 문화예술 참여에서 실천은 다소 엇갈리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문화예술 향유가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효과, 문화예술 장르나 유형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화예술 경험이 문화소비와 문화 향유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데, 문화예술 경험의 재생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경험이 특정 장르 관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인지 요인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성연주 2018; 소은혜 2021; 이아영·김범수 2021). 또한 문화예술 경험의 사회적 효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김인설 2013; 서우석 2015). 사회적 유대감 형성, 공동체 조직, 지역사회 재생 효과 등 사회적 영향력은 문화 향유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 중의 하나이며, 형성된 문화자본은 지배적인 문화적 코드로 작용하여 사회적 수준에서 제도화되기 때문에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2. 교육수준이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이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문화예술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유의하다고 증명되어 왔다(남은영 2010; 최영섭·김민규 2000).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급문화를 접할 가능성이 높고 문화적 취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아가 문화소비는 사회적·문화적 이동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DiMaggio & Useem 1978) 점에서 교육수준은 문화예술 경험에 주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교육수준이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화예술 유형 또는 고급·대중문화 취향 차이, 문화예술 관련 교육 경험이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교육수준과 문화적 취향의 문제를 다룬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계층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교육수준은 문화예술 경험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DiMaggio & Useem 1978). 교육수준이 음악 취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국외의 연구에서 높은 교육수준이 장르적 다양성에 있어서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Bryson 1996; Van Eijck 2001).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되는데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교육수준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김두이·금현섭 2018; 이호영·장미혜 2008).

교육수준뿐 아니라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문화적 취향을 결정하는 문화자본 논의와 맞닿아 있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별도로 부가적인 교육 경험으로서 여기는 경향이 크다. 최근에는 문화예술이 아동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유아 및 아동기 시절에 사교육의 일환으로 음악이나 미술교육을 받게 한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의 문화예술 교육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교육 경험이 문화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혜련·허식 2017; 정지은 2016). 그밖에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의 영향과 성인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다루기도 한다(김수정 외 2015; 성연주 2018).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특성은 2000년대 변화 추이를 다룬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강수택·박재흥(2013)은 교육수준별 문화예

술행사 관람률 차이를 설명하며, 1990년대 후반 소위 IMF 외환위기로 위축된 문화소비가 회복되는 기간이 교육수준별 집단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대졸 학력과 고졸 학력 집단 차이는 줄어드는 반면, 중졸 이하 집단과의 차이는 커지고 있어 교육수준에 따른 문화소외 집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특수한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참여에 위기가 발생하여도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이 회복에 유연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교육수준이 문화예술활동에 주요한 지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연령 및 세대가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

문화예술 경험에서 연령이나 세대차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앞서 교육수준의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빠른 사회변동으로 문화 향유의 연령별 차이가 확인되고 이로 인한 문화격차가 발생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문화예술 경험에 대한 관심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연령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예술 경험과 관련한 한국 사회의 분석에서 특히 청년세대와 노년층의 문화 향유를 다루거나 두 세대를 비교하고 있다.

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경험에 문화자본 및 경제적 여건, 가족구성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순화a 2021). 노년층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룬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보다 문화자본의 영향이 확인된다(권현정·박화옥 2008; 방수아·김소영 2012; 최순화 2021b). 베이비붐 세대와 그들의 자녀 세대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체 문화예술 관람률에서 초기 노년층으로 볼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아래, 청년 세대는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수준과 문화예술 교육 경험으로 대표되는 문화자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백처라·허식 2020). 이러한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연령이 문화자본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 연령에 따른 문화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강수택·박재흥 2013; 박은희·최혜경 2014). 2000년대 이후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의 접근성이 높아졌으며, 새롭게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기존의 노년층보다 문화 향유의 기회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4. 연구 소개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계층 이동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계층 이동의 기제로서 교육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수준은 문화예술 경험과 연결하여 문화 향유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더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고학력 인구를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육수준의 범주를 포함한 최근 변화를 반영한 연구가 요구된다. 문화 소비에 익숙한 세대의 노년층 편입과 세대 차이와 지역규모 차이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정책의 시행 등으로 문화예술 경험의 연령별 차이가 완화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연구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 많은 연구들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문화예술 영역에서 참여가 확대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문화예술 경험 변화에 교육과 연령 변수가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문화경험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교육 및 연령별 영역의 격차 변화 양상에 대해 집중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 향유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한다. 1991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로 조사된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05년에는 3년 주기 조사에서 2년 주기로 변경되고 이후 단계별로 표본크기가 확대되었다. 2019년에는 조사명을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변경하였고, 조사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다. 조사대상은 15세 이상이며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활동 공

간이용실태, 문화 관련 활동, 역사 유적지 및 축제로 구분된다. 또한 2012년 조사와 비교하여 2014년 조사부터 표본의 수가 약 5,000명에서 약 10,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예술행사 유형이 정립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의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다. 아쉽게도 2012년 이전 조사들은 문화예술활동에서 뮤지컬 등 주요한 유형이 빠져있어 이후 조사와 시계열적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2012년 자료부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2020년 이후의 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와 개최가 어려웠기 때문에 연도별 일반관람 행태 추이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보고서(2021)에 의하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2014년 이후 70% 이상, 2018년 이후 80%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60.5%에서 2021년에는 33.6%로 감소하였다. 또한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횟수는 2014년 5회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6.3회로 조사되었으나 2020년에는 3.1회, 2021년에는 1.4회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의 조사결과는 특수한 환경에 따른 요인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5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활동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체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성연주 2018).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점)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성별	남	40.58	45.93	47.81	49.09	48.19
	여	59.42	54.07	52.19	50.91	51.81
연령	20대	10.92	14.34	15.51	15.35	16.69
	30대	19.17	18.79	17.8	16.01	17.4
	40대	25.6	19.82	20.14	20.03	20.1
	50대	22.76	20.87	19.94	21.19	20.42

(계속)

연령	60대	11.82	12.71	13.32	14.37	14.16
	70대 이상	9.72	13.47	13.3	13.05	11.23
교육수준	초등학교	12.79	13.08	10.93	9.19	9.98
	중학교	9.26	9.6	10.14	9.66	7.54
	고등학교	40.86	36.75	36.27	37.08	34.91
	2년제 대학	13.68	14.09	16.74	16.39	13.07
	4년제 이상	23.42	26.47	25.92	27.68	34.49
혼인상태	미혼	14.62	18.60	20.75	23.30	24.28
	기혼	75.57	70.00	69.78	62.94	63.66
	이혼/사별	9.80	11.40	9.47	13.76	12.06
직업	유급노동을 하지 않음	40.44	36.58	34.51	28.33	33.51
	관리 및 전문직	6.84	3.40	3.52	4.28	5.75
	사무직	9.34	15.06	14.70	15.91	12.76
	서비스직	22.28	27.42	28.31	31.61	29.45
	기능직/단순노무	14.05	11.28	12.87	14.81	13.24
	농어업종사	7.05	6.25	6.09	5.06	5.28
미취학자녀 수	없음	88.93	89.15	88.9	91.59	89.57
	1명	7.2	7.43	7.97	6.16	7.42
	2명 이상	3.87	3.42	3.13	2.25	3.01
취학자녀 수	없음	71.09	76.21	77.21	79.08	81.7
	1명	11	9.65	11.05	10.63	8.88
	2명 이상	17.9	14.15	11.74	10.29	9.42
아동기 문화예술 교육경험	없음	89.69	90.19	84.48	84.1	84.68
	있음	10.31	9.81	15.52	15.9	15.32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경험	없음	90.24	90.66	84.23	85.83	87.92
	있음	9.76	9.34	15.77	14.17	12.08
가구소득	평균	4.74	4.86	5.09	5.10	5.19
N		4,753	9,289	9,873	9,804	9,425

주. 가구소득의 응답범주는 12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되나 본 연구에서는 연속변수로 취급(가구소득 범주: 1 ‘소득 없음’, 2 ‘월평균 100만 원 미만’, 3 ‘월평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 ‘200~300’, 5 ‘300~400’, 6. ‘400~500’, 7. ‘500~600’, 8. ‘600~700’, 9. ‘700~800’, 10. ‘800~900’, 11. ‘900~1000’, 12.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2. 변수의 설명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이며,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에 대한 직접 관람횟수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문화행사는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 총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유형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조사표에서는 관람여부와 함께 관람횟수를 응답자에게 요구하였지만, 각 유형을 2회 이상 여러 차례 관람한 응답자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에 한정해서 분석한다.

<표 2> 문화예술행사 유형 구분

문화예술행사 유형	내용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와 같은 문학 작품과 관련된 행사
미술전시회	그림, 조각, 공예품, 사진, 붓글씨, 건축, 디자인 등을 전시하여 보여주는 행사
서양음악	서양의 전통적 작곡기법이나 연주법에 의한 음악을 연주하여 들려주는 행사 또는 오페라
전통예술	판소리, 시조, 민요, 사물놀이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들려주는 행사 또는 민속놀이, 민속극(가면극, 인형극) 등을 시연하는 행사
연극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사로,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행사
뮤지컬	연기자에 의해 관객 앞에서 실연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공연 예술행사로, 음악극과 같이 음악·노래·무용을 결합하여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행사
무용	사람의 몸을 소재로 하여 육체의 내적·외적 행동을 통해 감정·정경·상황 등을 표현하는 예술 행사(예: 발레, 춤)
영화	연결된 필름을 연속적으로 영사해 재현시킨 움직이는 영상 (TV 제외)
대중음악(가요콘서트)·연예(방송 프로그램 등)	대중을 대상으로 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음악(유행가)을 공연하는 행사

주. 문화체육관광부(2020).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통계정보보고서(12쪽).
1) 뮤지컬 유형은 2010년까지 연극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2년부터 각각 조사.
2) 2016년 조사에만 실시된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유형은 분석에서 제외함.

주요 설명변수는 조사년도, 조절변수는 교육수준과 연령이다. 조사년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5회로 각각 1부터 5까지 선형(linear)으로 구성하였다. 교육수준은 <표 1>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 총 5개로 범주화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 연속변수 그대로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는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속하는 혼인상태, 직업, 미취학자녀 수, 취학자녀 수, 아동기 및 청소년기 문화예술 교육 경험 여부, 가구소득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구 구성이 미치는 영향은 혼인상태와 가족구성원의 수, 어린 자녀와 관련된 부분이다(김두이·김상훈 2019; 박혜련·허식 2017; 이은우 2016). 본 연구에서도 혼인상태와 미취학·취학자녀의 수를 통제하였으며,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 및 사별 3범주, 미취학·취학 자녀의 수는 없음, 1명, 2명 이상으로 범주화하였다. 직업은 유급노동을 하지 않음을 포함하여 6범주로 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기 예술교육 경험은 이미 형성된 문화자본으로 많은 관련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활용되고 있지만(서인석 2016; 정지은 2016),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활발해진 것은 90년대 이후로 아직까지 성인의 문화예술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른 세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성인의 문화예술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이호영·서우석 2011)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예술교육 관련 변수는 교육 경험의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소득의 경우 조사표에 따라 12개의 범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문화예술행사 관람 여부의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 여부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각 변수들이 관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각 변수들이 관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년도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주요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연도 변화에 따른 교육수준과 연령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조절변수로 교육수준과 연령을 연도와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문화예술행사 관람 특성과 변화 추이

연구목적인 연도별 문화예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관람률을 분석하였다. 문학행사 및 미술전시회 등 모든 유형을 포함하여 전체 문화예술행사를 조사 시점까지 1년간 한 번이라도 관람한 경우를 집계하면 2012년 62.93%에서 2019년 78.6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 유형에 따른 참여율은 <표 3>과 같다.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유형은 영화이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화예술 유형은 영화를 포함하여, 미술전시회, 전통예술, 연극, 대중음악·연예 유형이다. 문학행사, 서양음악, 뮤지컬, 무용 유형은 꾸준히 증가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2012년에 비해 2019년에는 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문화예술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된다.

<표 3>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참여율 (단위: %)

문화예술행사 유형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문학행사	4.90	5.36	5.17	7.31	6.55
미술전시회	8.04	9.71	11.78	13.12	13.26
서양음악	4.10	4.50	4.21	4.79	6.49
전통예술	5.98	6.46	8.34	9.21	10.81
연극	9.30	9.97	11.07	11.58	13.66
뮤지컬	9.66	9.85	8.79	10.87	12.27
무용	1.66	2.26	1.25	1.62	2.43
영화	57.08	57.54	67.80	71.31	73.62
대중음악·연예	10.94	12.76	14.54	19.51	21.86

영화 관람률은 2012년에 57.08%에서 2019년에는 73.62%까지 증가하여 가장 대중적인 문화예술 장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유형과 압도적인 차이가 나타나 문화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전연구의 결과(강수택·박재흥 2013)가 여전히 지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와 함께 대중문화 콘텐츠로 일컬어지는 대중음악·연예 유형의 경우도 2012년에서 2019년까지 약 10%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증가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고급문화 또는 순수예술 유형으로 여겨지는 미술전시회와 서양음악, 무용 유형은 상승폭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예술 취향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반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와 대중음악·연예 유형을 제외하고 참여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 것은 전통예술 유형이다. 전통예술 유형의 관람률 상승은 노년층의 문화소비 정책의 영향과 함께 전통음악뿐 아니라 민속놀이와 민속극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 복합적 문화예술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퓨전국악과 현대화 시도 등 전통예술 장르의 다양한 시도에 따른 영향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성인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관람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는 <표 4>로 제시하였으며, 각 값은 회귀계수(coefficient)이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확대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지수의 분포가 1.20~4.12사이로 모델에 포함된 변수들 사이에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을 제외한 모든 문화예술 유형에서 연도별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은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으며, 혼인상태는 일부 유형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유형에서는 정적(+) 영향,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는 부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별로 선호하는 문화예술 유형이 다

<표 4>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연예
연도	0.067***	0.102***	0.069***	0.167***	0.068***	0.041**	0.021	0.283***	0.203***
여성	0.413***	0.365***	0.313***	0.093*	0.421***	0.591***	0.735***	0.392***	0.212***
연령	0.009***	0.008***	0.013***	0.025***	-0.014***	-0.011***	0.021***	-0.051***	-0.008***
교육수준	0.430***	0.441***	0.494***	0.082***	0.334***	0.390***	0.297***	0.364***	0.120***
혼인상태(ref=미혼)									
기혼	-0.020	-0.059	0.031	0.192 *	-0.375 ***	-0.144 *	-0.337 *	-0.038	-0.114 *
이혼/사별	-0.195	-0.271**	-0.023	0.199*	-0.448***	-0.449***	-0.667**	-0.267***	-0.265***
직업(ref=유급노동을 하지않음)									
관리/전문직	0.484***	0.367***	0.624***	0.411***	0.524***	0.548***	0.287*	-0.021	0.170**
사무직	0.033	-0.028	0.075	-0.138*	0.403***	0.397***	-0.094	0.407***	0.111**
서비스직	-0.248***	-0.241***	-0.148*	-0.239***	-0.099*	0.010	-0.228*	-0.008	0.001
기능노동	-0.272**	-0.249***	-0.310**	0.038	-0.228**	-0.215**	-0.386*	-0.088*	0.025
농어업	-0.319*	-0.494***	-0.274	0.419***	-0.350**	-0.246	0.156	-0.812***	0.058
미취학자녀 수	-0.106	0.017	-0.250***	-0.111*	-0.031	0.122**	-0.081	-0.352***	-0.209***
취학자녀 수	0.131***	0.093***	0.028	-0.037	0.008	0.028	-0.006	0.127***	-0.127***
아동기_ 예술교육경험	0.221***	0.279***	0.450***	-0.048	0.193***	0.136**	0.092	0.185**	-0.010
청소년기_ 예술교육경험	0.789***	0.606***	0.786***	0.533***	0.414***	0.401***	0.496***	0.338***	0.233***
가구소득	0.041**	0.077***	0.083***	0.038**	0.096***	0.116***	0.064**	0.160***	0.057***
(상수)	-5.621***	-5.042***	-6.514***	-4.930***	-3.596***	-4.352***	-6.600***	0.299**	-2.659***
R^2	0.0812	0.0915	0.1003	0.0336	0.119	0.1166	0.0351	0.2926	0.0369
N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 $p < .05$, ** $p < .01$, *** $p < .001$.

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구성에서 미취학 자녀의 수는 서양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 모두 부적 영향이 확인되었으며, 취학자녀의 수는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영화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육아 부담 때문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의 문화예술 향유 불평등 문제(김주이·김상훈 2019)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취학자녀의 경우 자녀와 함께 교육적 목적의 활동이거나 육아부담에서 벗어나 여가시간이 증가한 점을 연결하여 영향의 원인을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직업의 특성에 따르면 관리/전문직의 경우 유급노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문화예술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확인되어 직업지위에서 전문관리직 계층이 문화소비에 적극적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지지되고 있다. 이는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하여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전이되는 이론적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직과 기능노동직, 농어업 종사 집단의 경우 다수의 문화예술 유형에서 부적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농어업 종사자들이 노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통예술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 취향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무직의 경우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 정적 영향이 나타나는데, 농어업 종사자들의 연령효과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무직 종사자들이 대중문화소비에 적극적이라는 점과 연결시킬 수 있다.

문화자본과 관련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예술교육 경험 여부는 청소년기 경험의 경우 모든 유형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며, 아동기 예술교육 경험은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에서만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전 연구에서 확인된 경제적 자원보다 문화자본의 영향이 더 주요하다는 점(최영섭·김민규 2000; 남은영 2010)은 교육수준과 아동·청소년기 예술교육 경험과 가구소득 변수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특정 대상 혹은 특정 유형의 문화예술 경험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은 무용 유형을 제외하고 아동기 예술경험의 영향이 전통예술 유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아동기 예술교육 수혜자들이 젊은 세대에 국한된다는 점과 함께 논의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소비에서 주요한 이론적 토대인 문화자본 논의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령 변수 이외에 직업이나 가족구성, 예술교육 경험 변수에서도 연령에 따른 세대 차이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절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수준과 연령별 차이를 최근 문화예술 경험 변화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분석한다.

3.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효과

교육수준과 연령의 조절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표 4>의 분석에서 교육수준과 연령을 조사연도 변수와 각각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문화예술행사 유형별 교육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교육수준과 연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연예 행사 관람에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집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예술 유형 중 전통예술과 대중음악·연예의 결과를 <그림 1>과 <그림 2>로 제시하였다. 전통예술 유형 그래프를 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대졸 이상 집단)보다 낮은 집단(초등학교 졸업 집단)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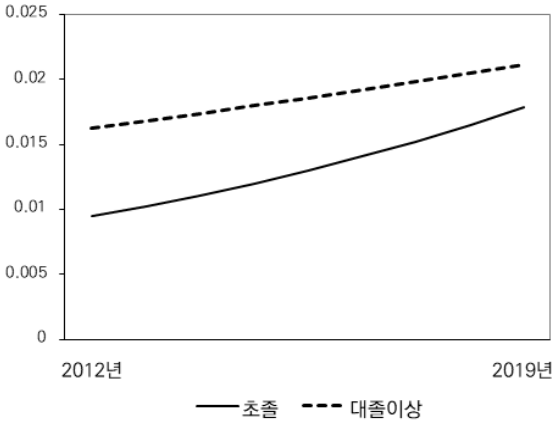
<표 5>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구분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연예
연도	0.047	0.100*	0.200**	0.282***	0.192***	0.291***	0.188*	0.295***	0.373***
교육수준	0.414***	0.439***	0.599***	0.207***	0.434***	0.589***	0.441***	0.376***	0.281***
연도*교육수준	0.005	0.000	-0.031	-0.036***	-0.030*	-0.060***	-0.044*	-0.004	-0.046***
R^2	0.0812	0.0915	0.1005	0.0341	0.1192	0.1175	0.0356	0.2926	0.0376
N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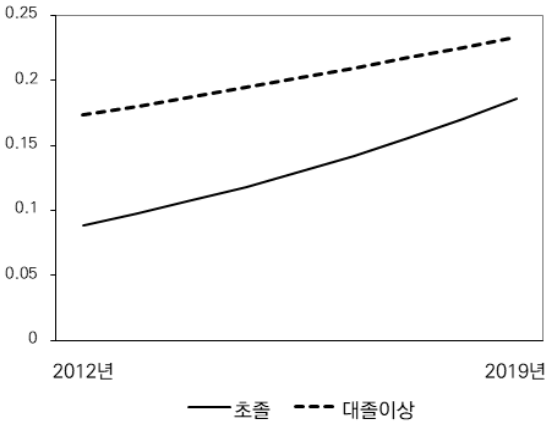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주: <표 4>의 모든 변수들이 통제된 결과임.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행사의 일부 유형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 참여율이 적은 무용을 제외하면 미술전시회나 서양

음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대중문화예술에 속하는 장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예술 경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세부적인 교육수준 범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00년대의 문화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대학교 학력 이상 집단과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 간의 문화 향유 격차가 점차 벌어졌다는 결과(강수택·박재흥 2013)와 차이를 보임으로써 최근의 문화격차에서 교육수준의 영향은 일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전통예술 유형에서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그림 2>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 교육수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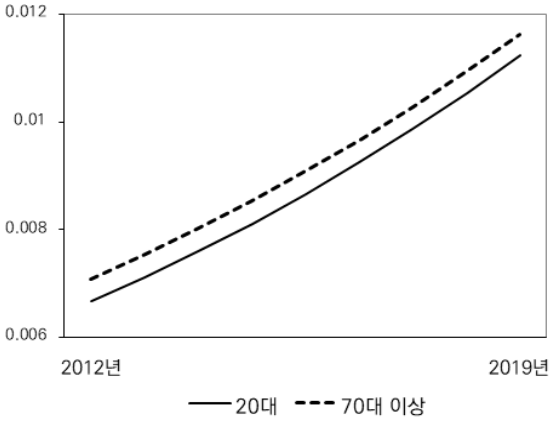
연령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으로 제시하였다. 연령과 조사연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결과, 미술전시회,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선 분석에서 문화예술 유형별로 연령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난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무용 중 미술전시회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연도변화가 미술전시회 관람률에 미치는 영향이 정(+)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전시회의 관람확률은 7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2012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미세하지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적을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는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 중에서 연극과 뮤지컬 유형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도변화가 관람률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방향으로 약하게 나타난다. 영화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 70대 이상 집단이 20대 집단보다 관람확률이 2019년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큰 것을 <그림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도 변화가 문화예술행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연령의 조절효과는 문화예술 유형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는데, 세대별로 다른 문화예술 유형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어 젊은 세대의 관람률 변화가 둔화되거나 감소 경향이 나타남에 비해, 노년층의 관람률 상승폭은 크게 나타나 연령에 의한 문화예술 경험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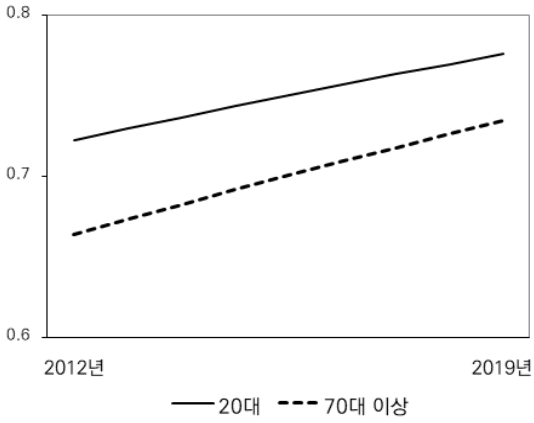
<표 7> 연령의 조절효과

구분	문학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 연예
연도	0.065	0.206***	-0.024	0.062	-0.232***	-0.179***	-0.160	0.101**	-0.018
연령	0.009	0.016***	0.005	0.018***	-0.040***	-0.030***	0.008	-0.063***	-0.026***
연도*연령	0.000	-0.002**	0.002	0.002*	0.008***	0.005***	0.004*	0.004***	0.005***
R^2	0.0812	0.0917	0.1005	0.0338	0.1211	0.1177	0.0357	0.293	0.0382
N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43,144

* $p < .05$, ** $p < .01$, *** $p < .001$.
주: <표 4>의 모든 변수들이 통제된 결과임.



<그림 3> 미술전시회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



<그림 4> 영화 유형에서 연령의 조절효과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통해, 문화예술행사 참여의 최근 변화를 문화예술 유형별로 살펴보고 교육과 연령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 문화예술행사 참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문화예술 유형 중 가장 높은 참여를 보이는 것은 영화였으며, 영화 관람률의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대중문화 콘텐츠로 분류되는 대중음악·연예 유형의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영화나 대중음악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로 문화격차는 점차 완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특히 2000년대 초반 변화를 다룬 이전의 연구결과(강수택·박재흥 2013; 박은희·최혜경 2014)의 연장선에 있다.

둘째,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에서 연도별 변화의 영향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 관련 변수,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학행사나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연극 등 고급문화나 순수예술로 취급되는 유형에서 혼인상태와 미취학·취학자녀의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 유형에서도 부분적 영향만 나타났다. 이는 돌봄과 양육부담으로 인한 참여의 어려움을 다룬 이전의 논의와 연결되는 지점이다(김주이·김성훈 2019). 문화자본 지표로 활용되는 교육수준은 모든 유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고 아동기 예술교육 경험 여부는 문화예술행사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연령 변수에서도 문화예술유형별 격차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전환의 효과를 다루는 기존 문화자본 연구의 흐름과 달리, 급격한 사회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교육수준과 세대의 변화가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2012년에서 2019년까지의 시간변화가 문화예술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육과 세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참여에 있어서 교육과 연령에 따른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교육수준은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연예 유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2012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문화예술 참여 확률이 높아져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가 일부 유형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별 격차는 미술전시회,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영화 유형에서 확인되었으며, 노년층의 관람확률 상승폭이 청년층보다 크게 확인되어 노년층의 문화예술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중문화예술에서 중년과 노년층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예술에 관심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유입되고 있다는 이전의 논의(박은희·최혜경 2014; 유은영·진현정 2016)와 연결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예술 유형을 활용하였다. 문화 향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문화예술행사의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의 문화예술 참여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참여 양상에서 한국적 문화 향유와 문화 소비의 특수성을 교육과 세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과 연령에 따른 문화예술행사 경험의 격차가 완화되어 왔다는 결과는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이고자 추진되었던 소외계층 대상의 맞춤형 문화 복지프로그램이나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예술정책의 영향를 일부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문화향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거시적인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최근 문화예술행사들은 시각 예술과 음악을 혼합하거나 서양 악기를 활용한 국악 공연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 순수예술과 대중문화 장르를 자료가 제시하는 유형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예술행사 참여에서 장르나 유형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자료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이를 변화의 추세에 담지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가생활 방식의 변화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매체의 다각화로 영화 관람이나 공연예술 행사를 직접 가서 관람하지 않고 집에서 즐기는 경우가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교류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여 이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자본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문화예술행사의 직접 관람과 매체 이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수택·박재홍. 2013. “한국 사회 문화격차의 변화추이와 문화취향.” ≪현상과인식≫ 37(3): 87-115.

구승회. 2020.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사회적 효과가 감성지능 및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81-102.

권현정·박화옥. 2008.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복지 관점에서.” ≪한국노년학≫ 28(3): 535-553.

김두이·김상훈. 2019. “육아기 여성의 문화예술향유불평등: 육아부담이 문화예술관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층의 조절 효과.” ≪문화정책논총≫ 33(1): 5-33.

김선형. 2008. “예술행사 관람 분석을 통해 본 문화자본의 한국적 적용: 옴니보어 이론의 실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01-1012.

김수정·이명진·최샛별. 2015.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개인의 문화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9(2): 4-24.

김인설. 2013. “사회자본 증진을 위한 촉매로서의 예술: 예술기반 실행연구 사례와 문화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7(2): 121-142.

김재근. 2019. “문화시민성 개념의 탐색: 문화예술교육의 시민교육적 의의.” ≪교육문화연구≫ 25(5): 503-521.

남은영. 2010. “한국 중산층의 소비문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 44(4): 126-161.

류희진·허식. 2018. “시기별·활동별 문화자본에 따른 순수예술 관람수요 결정요인 분석: 전시예술과 공연예술간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2): 87-113.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박근영. 2014. “영화관람 행위에 있어 옴니보어(Omnivore) 존재 여부에 대한 실증적 고찰.” ≪문화와 사회≫ 16: 143-185.

박은희·최혜경. 2014. “21세기 초 한국 성인들의 예술문화소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9): 433-443.

박혜련·허식. 2017. “문화예술영역의 수요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전시시장과 공연시장 비교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44): 69-93.

방수아·김소영. 2012. “실버 소비자의 공연 관람 유형화 및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논총≫ 26(1): 73-97.

배인경. 2018.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6(11): 89-96.

백처라·허식. 2020. “베이비붐세대와 에코세대 간 문화예술 향유격차에 관한 연구 -Oaxaca-Ransom 분해 방식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23: 135-166.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6.

서인석. 2016. “문화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효용성: 문화관련 ‘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1-52.

선우유영·류양섭·한용재. 2016. “청소년의 여가유형 및 여가만족도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5(2): 487-498.

성연주. 2018. “성인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예술향유 확대: 장르별 차이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0(3): 287-310.

소병희. 2008.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문화예술 향수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문화정책논총≫ 20: 106-125.

소은혜. 2021. “코로나 19 이후 문화예술경험에 따른 문화예술 소비성향 분석.” ≪예술경영연구≫ 60: 155-191.

오인수. 2017. “역대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소비격차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0: 31-63.

유은영·진현정. 2016.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7(6): 79-103.

이아영·김범수. 2021. “문화예술 경험 요인이 문화예술향유에 미치는 영향.” ≪예술경영연구≫ 58: 89-119.

이은우. 2016. “문화예술 상품수요의 결정요인 분석.” ≪문화산업연구≫ 16(2): 69-78.

이호영·서우석. 2011.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문화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5(1): 91-118.

이호영·장미혜. 2008. “문화자본과 영화선호의 다양성.” ≪한국 사회학≫ 42(1): 62-95.

장훈·김우정·허태균. 2012. “여가참여 다양성과 행복의 관계: 참여여가활동의 수와 여가시간 집중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9(3): 21-38.

정무성·김은아. 2013. “문화복지 참여에 따른 청소년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141-159.

정영교. 2019. “문화복지프로그램 이용이 노인의 생활만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복지실천학회지≫ 11(2): 84-106.

정영찬·이중식·김은미·신동엽. 2014. “한국 중·하위계층의 고급예술 소비 연구 - 클래식 및 국악 장르 공연 반복 관람자를 대상으로.” ≪예술경영연구≫ (30): 219-242.

정지은. 2016.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문화예술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중심으로.” ≪상품학연구≫ 34(2): 67-75.

조동민·이재준·이상호. 2020. “공연시장의 수요결정요인과 관람실태를 통한 활성화 방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7-124.

지현진. 2009. “청소년의 여가실태에 대한 종단분석: 4차년간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3(2): 145-156.

진현정·오현석다라·김예솔. 2020. “‘문화가 있는 날’ 영화할인 혜택효과 및 이용자시장 세분화 분석.” ≪문화정책논총≫ 34(2): 159-189.

최상미·전재현·정무성. 2015.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성.” ≪서울도시연구≫ 16(4): 177-194.

최샛별. 2014. “한국 사회 문화의 상징적 위계에 대한 조사: 한국 사회의 고급문화는 무

엇인가?" ≪조사연구≫ 15(4):123-152.
최순화. 2021a. "MZ세대의 옴니보어 문화예술 소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7(3): 101-119.
최순화. 2021b. "노년층의 문화예술 소비 결정요인과 문화소비 니즈 분석." ≪문화와 융합≫ 43: 509-526.
최순화. 2021c. "문화소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사회·환경 자본을 중심으로." ≪창조와 혁신≫ 14(3): 161-186.
최영섭·김민규. 2000. "한국인의 문화 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일 고찰: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12: 229-260.
홍윤미·이명우·윤기웅. 2015. "문화예술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I연구논총≫ 17(1): 185-211.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Translated by Richard Nice. Harvard University Press

Bourgeon-Renault, D., C. Urbain, C. Petr, M. Le Gall-Ely, and A. Gombault. 2006. "An Experiential Approach to the Consumption Value of Arts and Culture: The Case of Museums and Monu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Management* 9(1): 35-47.

Bryson, B. 1996. "Anything but Heavy Metal: Symbolic Exclusion and Musical Dislik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84-899.

Chan, T.W. and J.H. Goldthorpe. 2007. "Social Stratification and Cultural Consumption: Music in Englan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1): 1-19.

DiMaggio, P. & T. Mukhtar. 2004. "Arts Participation as Cultural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1982–2002: Signs of Decline?" *Poetics* 32(2): 169-194.

DiMaggio, P. and M. Useem. 1978. "Social Class and Arts Consumption." *Theory and Society* 5(2): 141-161.

Kalmijn, M. and G. Kraaykamp.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22-34.

Katz-Gerro, T. 1999. "Cultural Consump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Leisure Activities, Musical Tastes, and Social Loca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42(4): 627-646.

Katz-Gerro, T. 2002. "Highbrow Cultural Consumption and Class Distinction in Italy, Israel, West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Forces* 81(1): 207-229.

Katz-Gerro, T. and M.M. Jæger. 2013. "Top of the Pops, Ascend of the Omnivores,

Defeat of the Couch Potatoes: Cultural Consumption Profiles in Denmark 1975 −2004."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9(2): 243-260.

López-Sintas, J. and T. Katz-Gerro. 2005. "From Exclusive to Inclusive Elitists and Further: Twenty Years of Omnivorousness and Cultural Diversity in Arts Participation in the USA." *Poetics* 33(5-6): 299-319.

MacPherson, G. and J. Flinn. 2008. "Culture Matters? The Role of Art and Cultur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Sport, Leisure, Culture and Social Capital: Discourse and Practice* 119-137.

Peterson, R.A. 1992. "Understanding Audience Segmentation: From Elite and Mass to Omnivore and Univore." *Poetics* 21(4): 243-258..

Peterson, R.A. and R.M. Kern. 1996. "Changing Highbrow Taste: From Snob to Omnivo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00-907.

Pine, Joseph B. and James H. Gilmore. 1999. *The Experience Economy: Work is Theatre and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eeves, A. and De R. Vries. 2019. "Can Cultural Consumption Increase Future Earnings? Exploring the Economic Returns to Cultural Capital."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0(1): 214-240.

Rössel, J. 2011. "Cultural Capital and the Variety of Modes of Cultural Consumption in the Opera Audienc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2(1): 83-103.

Van Eijck, K. 2001. "Social Differentiation in Musical Taste Patterns." *Social Forces* 79(3): 1163-1185.

Warde, A. and M. Gayo-Cal. 2009. "The Anatomy of Cultural Omnivorousness: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Poetics* 37(2): 119-145.

Warde, A. and T. Bennett. 2008. "A Culture in Common: The Cultural Consumption of the UK Managerial Elite." in M. Savage and K. Williams (eds.). *Remembering Elites* (pp. 240-259).

<접수 2022.02.22; 수정 2022.02.22; 게재확정 2022.02.26>

Changes in Experiences of Cultural and Art Events, 2012-2019

Narae Yun,
(University of Seoul)
Yun-Suk Lee
(University of Seoul)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change in experiences of cultural and art events by types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educational levels and age. Annually repeated cross-sectional data of the Survey of Cultural Enjoyment from 2012 to 2019 were use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rates in cultural and art events rose gradually during the period. Second, annual changes in cultural and artistic events participation and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of the participants were impacted by the types of culture and art. Third, education and the age gap had moderator impacts on changes in the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 events. As a result, the educational gap and age difference in participation in cultural and art events were gradually decreasing.

Key words: cultural and art events, changes in participations, education level, age difference, the Survey of Cultural Enjoyment